

유까탄 기후제 의례에 나타난 리더십의 기원과 의미*

정혜주

부산외국어대학교

정혜주(2013), 유까탄 기후제 의례에 나타난 리더십의 기원과 의미.

초 록 옥수수의 경작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면 유까탄 반도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비를 기원하는 '차차 의례'를 한다. 마을전체가 하는 공적인 행사로, 전통적인 지도자인 희멘이 주관한다. 마을 사람들이 여러 겹의 포르띠아인 뚜껑레스, 성스러운 음료 발체를 준비하는 동안 희멘은 천정과 세 면이 닫힌 의례의 공간을 만든다. 열린 한 면을 통하여 의례의 공간으로 들어간 희멘은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고, 각각의 귀퉁이에 하늘을 받치는 신을 상징하는 젊은이를 세운다. 오방위의 중심이 된 희멘은 네 귀퉁이의 탁자를 돌며 천체의 운동을 재현하며 비의 신과의 대화를 하고 마침내 비를 불러온다. 희멘이 이끄는 오늘날의 의례는 메소아메리카 문명 형성기의 유산인 찰까친고에서 발견된 동굴과 토기, 떼오쁘데꾸아니틀란의 중앙 신전, 그리고 훔볼트의 '도끼모양 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차차의례에 투영되어 있는 곡물의 경작과 함께 시작된 리더십은 오늘날의 마야사람들에게도 유용한 고대 메소아메리카문명의 유산이다.

핵심어 희멘, 차차 의례, 신을 부름, 세상의 중심, 고대문명 유산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NRF-2008-362-A00003).

I. 머리말

멕시코의 유카탄(Yucatan)반도는 도시 또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3000여 년 동안 마야문명을 발전시킨 지역이다. 마야문명을 비롯한 올메카, 테오티우아칸, 우아스페카, 아스페카, 믹스페카 문명을 포함하는 메소아메리카 문명은 기원전 약 1500년부터 멕시코 만에서 시작하여 태평양 서부 과테말라 고원지대 및 빠텐 저지대, 온두라스, 벨리즈의 열대 우림에서 번성하였다. 서기 700-1100년 사이에 가장 화려하게 발전하였던 마야문명은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했던 1518년 당시에는 쇠퇴기에 있었으나, 이 문명을 결정적으로 종결시킨 사람들은 스페인으로 부터 군사들과 함께 온 가톨릭 성직자들이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한 마야의 대도시는 현재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북서부에 위치한 메리다(Mérida)였다. 메리다는 쇠퇴기에 있었던 마야문명의 마지막 순간에 번영하고 있던 도시였다. 티호(T'ho)라고 부르던 이 도시에는 하얀 석회암으로 된 피라미드가 우뚝 솟아 있었으며 석회를 발라 정비한 도로¹⁾가 도시 안의 건물들을 연결하였고, 도시의 뒤편으로는 녹색의 숲이 펼쳐졌다. 숲속에는 작은 초가집이 흩어져 있는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피라미드와 부속 건물들이 있었다. 건물들의 벽에는 붉은 색 바탕 위에 수많은 형상들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형상들이 조각된 석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야사람들의 집에는 형상이 조각된 석상들과 그림과 글씨가 쓰인 고문서가 있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피라미드에 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였고, 마을이나 집에서 크고 작은 의례를 하고 있었다.

일련의 군사적 정복을 이루고 메리다에 정착한 스페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파괴하고 그 위에 가톨릭 성당을 세웠다. 그리고 마야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문서를 불태우고, 조각된 석상들은 눈에 띄는 대로 없앴다(Matos Moctezuma 2001, 217). 가톨릭의 사제들은 마야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을 버리고 새로운

1) 마야사람들은 석회암을 구워 가루를 내어 석회를 생산하였다. 도로는 흙을 깔고 다진 후에 석회를 발라 마감하였다.

신인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가톨릭의 의례를 받아들이고 가톨릭에 의하여 세워진 사회질서에 적응하여 살아야만 했다.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사회는 300년간 계속되었다. 마야의 도시들은 부서지고, 광장을 중심으로 성당, 행정기관, 시장이 들어선 스페인풍의 도시로 바뀌었다. 스페인에서 온 백인들과 그 후예들은 돌을 깎 거리를 마차로 지나갔다. 마야사람들은 도시 뒤편의 숲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그들의 오래된 터전이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숲에서 고대 마야문명의 후예들은 여러 마을로 흩어져서 살았다. 가톨릭의 사제들은 숲속에 퍼진 마을에도 성당을 세우고 흩어져 사는 마야 사람들을 모으고자 했다. 그러나 메리다의 한정된 인원의 성직자로서는 숲에 흩어져 있는 성당을 방문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웠다. 그리하여 스페인 사제들은 마야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미사와 세례, 학습 등을 이끌도록 하였다(Rugeley 1996, 12-27). 그리고 메리다의 사제들은 가끔 그들을 방문하였다. 가톨릭 사제로 교육받은 마야사람들은 새로이 배운 가톨릭 예배의 형식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성당을 정성스럽게 장식하고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다. 그렇게 3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마야사람들은 중미의 여러 나라로 나뉘어서 독립을 하였다.

마야시대나, 식민지시대나, 독립국가가 된 오늘에도 원주민들이 사는 세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숲 속의 작은 공간에 흩어져 살며 마을의 중앙에 있는 성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²⁾ 주위의 마을들이 점점 도시화됨에 따라 그들이 생존하는 방식이 옛날과 같이 전적으로 농업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절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하는 의례는 계속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우제이다. 유까탄 반도는 석회암으로 된 카르스트 지형이다. 지상에는 강이 흐르지 않고 비가 오면 땅 밑으로 스

2) Villa Roja(1995)에 의하면, 마야의 공동체는 언어를 중심으로 나뉜다. 현재 31개의 마야어가 존재한다. 각각의 마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인 큰 공동체 안에는 마을단위로 작은 공동체들이 있다.

며든다. 따라서 곳곳에 샘이 발달되어 있고, 강은 땅 밑으로 형성되어 흐른다. 특히 유카탄 반도의 북쪽은 흙의 두께가 평균 60cm 정도로 매우 얇아서 나무들이 크게 자라지 못하는 지역이다. 물을 저장하는 자연환경을 갖지 못한 곳에서 농사를 기반으로 하여 사는 마야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였다. 특히 옥수수를 심는 5월에서부터 추수를 하는 10월까지,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동력기계를 갖고 있고 큰 도시에서 살수차가 올 수 있는 오늘날에도 ‘비’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숲 속의 마을에서는 ‘희멘(h-men)’이라고 불리는, ‘의례를 이끄는 사람’을 모시고 기후제를 지낸다. 희멘은 성당 또는 광장에서 의례를 지낼 상을 마련하고, 마을의 원로 및 교회의 사제들을 이끌고 의례를 한다(Alonso Espinoza 1995, 46).

이는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일인데, 첫 째는 기후제는 마을 전체의 일로서 광장 또는 성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기후제가 가톨릭에서 기피해야 할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과 공공성이 있는 행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다른 하나는 ‘희멘’이 주관한다는 점이다. 유카탄 대부분의 마을에는 성당이 있고, 가톨릭의 사제가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일상생활의 의례적인 부분을 관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례에서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 또한 마을 전체의 공적인 행사이지만 마을의 행정관 역시 이 의례를 이끌지 않는다. 기후제에서만은 ‘희멘’의 권위, 그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유카탄의 기후제를 이끄는 ‘희멘’의 리더십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며, 그 기원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II. 유카탄의 기후제 제단과 희멘

1. 기후제 제단 공간 구성의 특이성

바야돌리드(Valladolid)는 메리다와 함께 식민지시기의 유카탄의 중심지였다. 오늘날의 옷차림을 한 사람들과 함께 마야의 전통의상인 우이펄(Huipil)을 걸친 여인들과 식민지시대부터 입게 된 흰 옷을 걸친 남자들이 걸어 다



〈그림 1〉 유카탄의 제단들(산로게 박물관 소재, Valladolid, Yucatan, 필자 사진)
(좌) 하날 빠산(Hanal Pixan) 제단. (우) 차착(Cha'a-Chak) 제단.

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도시이다. 거리의 중앙도로의 한 쪽에 붙어있는 스페인식 건물은 마야사람들의 과거를 진열해놓은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고대마야의 유물뿐만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마야사람들의 생활과 의례도 소개하고 있다. 거기에 매우 비슷한 형태의 제단을 차려 놓았으나 전혀 다른 의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

박물관에 적혀있는 설명에 의하면 그림 1 (좌)는 ‘죽은 자의 음식’이라는 뜻의 ‘하날-빠산(Hanal Pixan)’의 제단이다. 죽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날’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으리라고 차린 제사상이다. 그림 1 (우)는 ‘비의 신 착(Chak)을 부르는’ 제단, 즉 비를 기원하는 제단이다. ‘차착제의’는 우기가 시작되는 5월에 하고, ‘죽은 자의 날’은 11월 1-2일에 기념하므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우기가 시작되는 5월에 옥수수를 심으며 비가 오기를 기원하고 10월에 추수를 하여 죽은 자들에게 바친다. 따라서 두 제례는 옥수수의 파종과 추수, 습한 기후와 건조기후 등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순환에서 한 시기를 맺고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시간의 의례이다.³⁾ 즉 농업에 의존하여 사

3) 김세건(2009, 8)에 의하면 아스떼카 문명이 있었던 멕시코시티 근처의 산 안드레스 마을에도 5월 3일 십자가의 날과 11월 1일 ‘죽은 자의 날’을 우기의 시작과 건기의 시작의 날로, 두 의례는 건기와 우기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 순환이 계속된다. 특히 농민들에게 중요한 의례는 우기의 시작, 비와 관계되는 의례라고 하였다.

는 마야원주민이 한 해를 꾸려가는 가장 중요한 의례이다.

두 제단에는 세 면에 각각 나뭇가지와 앞으로 아치를 세워 평범한 탁자 위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십자가와 음식들을 올려놓았다. 양 쪽의 제단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앞에 촛불을 켜 놓아 가톨릭의 예배제단의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음식을 벌여놓은 모습과 우이뿔을 입은 여인의 모습에서 마야 원주민의 전통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두 제단은 위와 같은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많이 있다. 그림1(좌)의 제단에는 죽은 자들이 와서 먹을 음식을 풍성하게 올려놓았다. 그림1(우)의 제단에는 차려진 음식은 적고 많은 양의 음식을 담은 통이 탁자의 아래에 있다. 그림1(좌)는 음식을 베푸는 것이 목적인 공간인 반면에 그림1(우)의 음식은 제단의 여러 요소 중의 하나일 뿐인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두 제단은 비슷해 보이기 는 하지만 서로 다른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차착제의의 제단에서는 탁자 위로 나뭇가지를 구부려 천장을 만든 것이 보인다. 그리고 천장의 가운데에서 줄을 내려 향아리를 걸어 놓아 중심을 잡았다. 가운데에 중심이 내려옴으로 하여 공간은 입체화되고 네 구석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에 비하여 하날-삐산의 제단은 제물을 놓는 공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의례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하날-삐산의 제단은 우이뿔을 입은 여자와 남자가 양쪽으로 서서 열린 공간을 형성하고 있지만, 차착의례에서는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남자 두 명이 대각선으로 제단의 귀퉁이에 서서 닫힌 공간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탁자 다리를 등에 지고 앉아있는 두 어린이가 있다. 이들은 탁자 위에 만들어진 공간 외에 탁자 아래로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탁자를 매개로 두 공간은 연결되고 있다. 앉아있는 두 어린이와 물동이는 탁자 아래의 공간이 위의 공간과 마찬가지로 활발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착의례의 제단 앞에는 기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즉 하날-삐산의 제단은 신성한 공간에 제물을 놓고 그 제물은 모든 죽은 자들에게 열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차착의례 제단은 기원을 하고 있는 사람에

계만 열려진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하늘 빼산의 제단이 완전히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죽은 자를 위한 음식과 촛불, 그리고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가톨릭의 제단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에 비하여, 차착의례의 제단은 기원을 하고 있는 한 사람만을 위한 제상이며, 제상 자체에 위와 아래가 있는 다층 공간을 보여주어 차림새와 공간구조에서 기독교와는 전혀 별개의 것을 형성하고 있다.

2. 기우제(차착)의 공간 및 ‘희멘’의 역할 분석

이 차착의례는 단순히 그림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1989년에 유카탄의 야수나(Yaxuna) 마을에서 피라미드와 건물의 잔해를 발굴하고 있던 고학자들은 기우제를 실제로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차착(Cha’a-Chak)” 의례를 관찰한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차착의례는 마을의 광장에서 하기로 하였다. 의례의 준비물은 단순하였다. 차착 제의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마을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준비하고 일을 하였다. 돈 빠블로는 싸구려 림 두 병, 양초 10자루, 수지로 된 향 10봉지, 그리고 살아있는 닭 두 마리였다. 돈 빠블로는 닭국을 끓이도록 두 마리의 닭을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만든 옥수수반죽을 들고 왔다. 반죽으로 토르띠야(tortilla)를 만들고, 그것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뚜틸레스(tutiles)⁴⁾를 만들었다. 토르띠야는 얇은 전병이어서 마치 하늘의 층과 지하의 층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 닭죽을 끓이면서, 뚜틸레스를 만들고, 꿀로 만든 술을 갖고 오고, 자연의 깊은 샘에서 맑은 물을 떠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뚜틸레스를 구울 구덩이를 파고, 또 다른 한편은 제단을 세웠다.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탁자의 가운데에는 긴 나무를 세우고 방울을 둥그렇게 둘러 매단다. 십자가 위쪽으로 네 귀퉁이와 가운데를 가로 지르도록 네 방향으로 나뭇가지를 구부려 덮는다. 나뭇잎들은 가지에 매달려서 제단 위로 늘어진다(그림 2). 그들의 제단은 나뭇가지들로 엮은 볼품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제단은 의례를 하는 동안에 ‘성스러운 공간’이 될 것이다. 여기에 발체(balche)⁵⁾와 음식물, 촛불과 십자가를 놓고 성스러운 돌들을 놓았다.

4) 옥수수전병인 토르띠야는 일반적으로 한겹이다. 뚜틸레스는 13, 10, 9, 7, 등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드는 큰 옥수수전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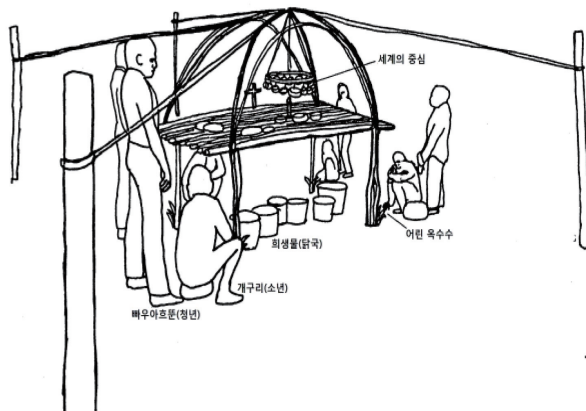
희멘 돈 빠블로와 그의 조력자들은 제상이 만들어 질 자리에서 사흘 간 기도와 준비를 했었다. 나흘째 되는 날, 제물이 준비되고, 제상 위에 성스러운 공간이 형성되고, 어른과 아이들이 각 모서리에 자리를 잡아 기우제를 지낼 상이 완성되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돈 빠블로는 엄숙하게 제단 앞에 웅크리고 앉아 나뭇가지가 박힌 양철통을 주워 올렸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 나무의 수지를 말려 가루로 만든 하얀색의 뽐(Pom)⁶⁾이 든 봉지를 꺼냈다. 그것을 양철통 속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숯 위에 뿌렸다. 향기로운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올라오자 돈 빠블로는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며 수액을 짜내고 밑을 동여맨 잎이 무성한 나무와 어린 옥수수나무들 주위를 ‘시계와 반대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 수지 향의 연기는 더운 공기 속에서 그의 앞뒤로 피어 올랐다.

그가 제단 위에서 있는 십자가 주위를 돌며 소리 높여 ‘비의 신’과 대화를 하는 동안 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젊은이들이 몸을 낮추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무로 만든 칼과 총을 두들기며 나무주위의 옥수수그루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맑은 물을 뿌렸다. 남자들은 비를 부르는 천둥소리를 내는 것이며 두 어린이는 개구리들을 상징한다. 소년들은 비가 오는 밤에 나는 짹짹, 개굴개굴하는 소리를 흉내 내어 “우와, 우와”하는 소리를 내며 비를 불렀다.

돈 빠블로는 제단의 앞에 서자, 더욱 크게 기도를 하려고 잠시 멈추었다. 그는 나무의 중앙에서 바깥으로 뻗은 여섯 가지 중의 하나를 잡아당겼다. 그는 비바람이 초가지붕을 흔드는 것처럼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는 황홀경에 잠겨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좋은 수확을 가져올 비를 기원했다.”(Freidel, Schele and Parker 1993, 55-58).

야수나의 차착의례의 제단(그림 2)과 바야돌리드의 박물관에 있는 삽화(그림 1(우))는 거의 일치한다. 천정과 세 면이 있는 닫힌 공간, 네 개의 구석과 그것을 지키는 네 명의 어른과 그 밑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유까

5) 마야의 제의용 술, 마을의 근처에서 자라는 발체 나무를 잘라서 발효해서 만든다.
6) 마야어 뽐(pom)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페인어로 꼬뽀(copal)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무의 수지를 말려서 가루로 만든 것으로 불을 붙이면 연기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림 2〉 야수나 마을의 기우제 제단 희멘과 조력자들이 십자가 위쪽에서 네 방향으로 나뭇가지를 구부려 덮어 만든 네 구석과 천정을 가진 의례의 공간을 도면으로 그린 것.

빠우아흐툼 신을 나타내는 네 명의 젊은이가 각 모서리에 서고, 개구리를 의미하는 소년들이 그 밑에 앉아있다.(Freidel, Schele & Parker 1993, 56, 필자 수정).

탄 반도를 점유하고 있는 유카탄주 및 킴파나로(Quintana Roo)주에 사는 5월 초에서 중순사이에 대부분의 마야마을에서는 이와 같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한다.⁷⁾ 기우제를 주재하는 희멘 돈 빠블로의 일과 구성물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보자.

- 기우제를 지내기 위하여 희멘은 마을 사람 전체가 광장에 모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함께 준비하고 일도 함께 하도록 하였다.
- 두 마리의 닭을 잡았다. 그는 의례를 신성하게 할 희생을 바친 것이다.
- 제단 위에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었다.
제단에 나무를 구부려 아치를 세움으로 해서 둥근 천정, 즉 하늘을 만들고 그 천정에는 나뭇잎들이 무성하게 드리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운데에 나뭇가지를 세워 하늘과 땅 사이의 신성한 공간을 만든 것이다. 이로써 그는 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 성스러운 공간에 드나들 수 있는 입구를 지정하였다.
세 면에 각각 아치를 세워 닫힌 공간으로 만들고 다른 한 면은 열어 두었

7) 현지 고고학자 Francisco Pérez와 대화(2010).

는데, 이는 동굴기도소, 메소아메리카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지은 집과 같은 구성이다.⁸⁾ 한 면을 열어둔 것은 희멘(이 경우에는 돈 빠블로)이 신성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은 남쪽을 향해 열려 있어 희멘이 이 공간에 들어가서 바라보는 쪽은 북쪽이다. 마야사람들에게 북쪽하늘은 신이 거주하는 곳이다.⁹⁾ 신과 마주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이다.

- 그를 중심으로 네 구석에 젊은이들이 서 있도록 하여 그는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천정을 받치기 위하여 세워진 가운데의 나무는 분리되어있던 인간의 세계와 하늘 세계,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이 나무를 중심으로 네 구석을 받치는 것을 상징하는 젊은이 네 명이 네 모서리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⁰⁾ 가운데의 나무와 네 구석은 메소아메리카의 다섯 방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열린 문으로 성스러운 공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중심에서 서서 기도를 하는 돈 빠블로는 다섯 방위의 중심, 즉 ‘세계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리고 네 명의 젊은이는 각각의 방위를 받치는 신이 된다.¹¹⁾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땅에서 솟아올라 하늘을 들어올려 마야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상의 공간을 만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초의 마야사람인 옥수수신이 한 일이다.¹²⁾ 옥수수신은 가운데를 받치고 일어서서 스스로 ‘세계나무(Axis Mundi)’가 되고, 네 구석은 각각 빠우아흐툼(Pauhtún)신이 받친다. 이는 돈 빠블로와 네 명의 젊은이가 각각 옥수수신과 빠우아흐툼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시계의 반대방향, 즉 천체의 운행방향으로 네 귀퉁이를 돌면서 의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돈 빠블로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제단을 돌며 하늘에 있는 비의 신과 대화를 시도하였다.¹³⁾ 시계의 반대방향은 천체가 운행하는 방향이다. 그는 천체의 운행을 따라하면서 그 질서에 동참한 것이다.

-
- 8) 동굴과 피라미드 정상에 있는 집은 구조가 같다. 천정과 바닥 및 세 면이 닫히고, 기도하는 자가 들어가는 문만 열려있다.
- 9) 빨렌계 십자신전의 비문에 의하면(Schele and Freidel 1990, 246), 옥수수신은 북쪽에 자신의 집을 세웠다.
- 10) 마야문명에서 동서남북의 네 귀퉁이에서 하늘을 바치고 있는 네 명의 신은 빠우아흐툼(Pauhtun)이다. 문명의 말기에서 식민지 초기에는 바깥(Bacab)이라고 불렀다(De la Garza 2002, 41).
- 11) 네 방위와 중심, 즉 세상을 오방위로 보는 것은 메소아메리카의 기본적인 우주관이다(Lopez Austin 1996). 가운데는 ‘세상의 중심’, 원어로는 Axis Mundi. 세상의 중심의 첫 째 일은 하늘을 들어 올려 중간 세상에 인간이 살도록 하는 것이다.
- 12) 빨렌계 십자신전의 비문에 의하면(Schele and Freidel 1990, 246), 빨렌계의 첫 번째 신이 하늘을 들어 올리며 일어서자 비로소 옥수수신이 되었다.

- 수지향이 퍼져나가자 희멘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였다.
- 향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으로 그의 기도가 들릴 수 있는 매개체이다.
- 그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개구리 소년들은 개굴개굴 소리를 냈다.
- 비가 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나타낸다.

희생의례를 드리고 신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느 샤먼이든지 하는 일이다. 그러나 돈 빠블로가 스스로 오방위의 중심이 되어 천체의 운동을 따라함으로써 스스로 자연 질서의 한 부분임을 과시한 것은 마야문명에 나타난 메소아메리카의 독특한 우주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돈 빠블로는 ‘희멘’이라고 불린다. ‘희멘(h-men)’은 ‘아흐멘(ah-men)’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마야어로 아흐(ah)는 존칭어고, 멘(men)은 선생, 공직자라는 뜻을 갖는다(Barrera Vásquez 1991, 520). ‘아흐멘(ah-men)’ 대신에 ‘해’라는 뜻의 ‘아흐킨(ah-kin)’으로 부르기도 한다(Alonso Espinoza 1995, 46). 아흐(ah)는 가장 오래된 마야어인 ‘원시-마야(Proto-maya)’¹⁴⁾에서 주군을 의미하는 아하우(ajaaw)에서 온 접두어이다.¹⁵⁾ 해를 의미하는 킨(kin)도 마야문명에서 주군 또는 왕을 상징하는 용어였다. 돈 빠블로가 만든 공간과 그가 한 행위에는 메소아메리카의 우주관,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형성기 및 마야문명 고전기의 세계관¹⁶⁾ 등이 표출되어 있다. 뿐만이 아니라 ‘희멘’이라는 용어 자체가 단순한 샤먼이 아닌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그 기원 또한 상당히 오래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희생의례를 하고 스스로 세계나무가 되어 신과 대화를 하여 비가 내리게 한, 희멘으로서 그가 한 일의 원형을 찾아 그 의미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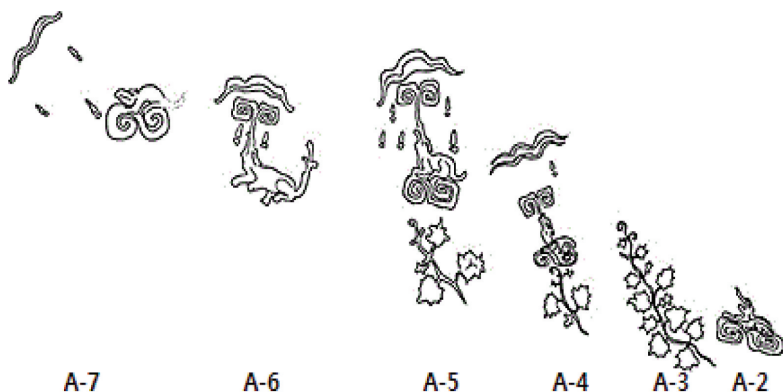
-
- 13) 이는 모방주술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 마야의 피라미드인 켄로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집에는 의례를 행하는 자가 천체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한 바퀴 돌도록 구조가 되어있다(Lopez Austin 1995, 14) 의례를 집전하는 자가 천체운행을 따라하는 모방주술을 한 증거로 본다.
- 14) ‘원시-마야(Proto-maya)’언어는 약 4000년 전에 나타나서 현재 31개의 언어분파가 있다.
- 15) 언어학자 Søren Wichmann과의 대화(2013).
- 16) 올메카와 마야문명은 형성기(기원전 1500-100년), 전기 고전기(100-500년), 고전기(500-900년), 후기고전기(900-1500년)로 발전단계를 나눈다.

III. 고대문명에서의 흔적

1. 신과 대화를 하는 자, 찰까친고

찰까친고는 초기의 제전중심지¹⁷⁾의 하나로, 기원전 1000-500년경에 세워진 중요한 공공건축물들과 돌 벽에 새겨진 여러 형상들이 남아있다.¹⁸⁾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형상들이 켄로-데-라-칸테라(Cerro de la Cantera)의 돌벽에 새겨진 것이다. 돌 벽에는 연속적으로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구름, 빗방울, 동물들, 스퀴시 나무 등이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독립적으로 동굴이 옆면으로 그려져 있는데, 안쪽의 의자에는 사람이 앉아있다.

왼쪽에서부터 보면, 여섯 개의 형상이 보이는데, 그 중의 4개는 맨 위에 구름을 이고 있다(그림 A2-A7). 오른쪽의 마지막 두 개의 형상에서는 닳아 없어져서인지 구름과 빗방울은 보이지 않고 나무와 동물만 남아있다(A2, A3).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동굴과 그 주위의 모습이다(



〈그림 3〉 켄로-데-라-칸테라 돌벽의 그림 스케치 (Chalcatzingo, Guerrero) 비를 기원하는 문장들.

(Mark Stone 그림, 필자 수정, 번호 A1-A7은 임의로 붙인 것)

17) 원어는 centro ceremonial, 피라미드와 부속건물, 그리고 공놀이경기장 및 광장이 있는 중심과 그 주위의 마을로 이루어진 마야의 도시.

18) 찰까친고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500년경으로 본다. 제전을 하는 공공건물들은 기원전 1000-500년 사이로 추정한다(Grove 1994, 165).

그림 5, A1 참조).

이곳이 제전중심지였다면 여기에 그려진 그림들은 제전과 관계있는 것이다. A1은 동굴과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동굴주위의 날씨 등 자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A2에서부터 A7까지의 그림은 비슷한 요소들을 반복하고 있다.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그림은 A5인데, 구름, 양쪽으로 펼쳐진 소용돌이, 위를 쳐다보고 있는 동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달팽이 모양, 그리고 스퀴시나무이다. 문자 및 도상학(iconography)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같은 그림이 다른 조합으로 반복되는 이 그림이 메소아메리카문명에서 초기¹⁹⁾의 문자라고 생각하였다(Angulo 1987, 133; Justson 1986).²⁰⁾ 그리고 이 문자가 제전과 관련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은 A5이다. 이 그림을 중심으로 의미를 알아보자.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이다. 구름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나머지 형상들은 그 비와 관계된 것들이다. 비를 바라보며 소용돌이를 내뿜고 있는 동물, 서로 반대방향으로 돌고 있는 달팽이모양은 그 동물을 받치고,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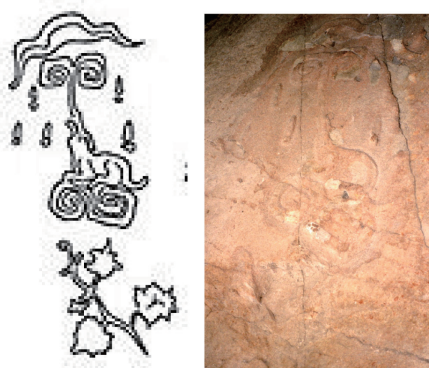


그림 4. 비를 기원하는 문장 A5.

(4.1 왼쪽) 암벽그림의 스케치(Mark Stone의 그림 일부).

(4.2 오른쪽) 암벽에 새겨진 그림 사진 (필자 사진).

19)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초기는 형성기(Formativo)라고 부른다. 대체로 기원전 1500년 경부터 서기 100년 사이에 문명이 이루어졌다.

20) Angulo(1987)는 찰까친고의 돌을새김은 형성기에 이루어진 ‘문자’라고 규정하였다.

아래에는 스퀴시²¹⁾나무가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동물의 입에서 나와 양쪽으로 갈라지는 T자 모양의 소용돌이와 그 동물 아래에 있는 달팽이 모양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소용돌이는 양쪽으로 퍼져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고, 달팽이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다. 달팽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은 음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과 죽음, 건기와 우기, 낮과 밤, 더움과 차가움 등 한 요소의 두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Angulo 1987, 138). 두 요소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어지는 요소이다.

동물의 입에서 두 줄기의 소용돌이가 나와서 영어의 T자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은 몸속에서 나오는 에너지, 숨결 또는 말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메소아메리카 문명에서는 전통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소용돌이는 ‘말하는 것’을 의미하였다.²²⁾ 따라서 비를 기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는 달팽이 모양은 음에서 양으로, 밤에서 낮으로, 차가움에서 더움으로 바뀌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보면 ‘시간이 바뀌어 비가 오는 때를 기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Angulo 1987, 139). 구름 아래로 비가 떨어지고 있고, 두 달팽이의 형상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것, 즉 여기에서는 건기에서 우기로 가는 때를 말하고, 그 아래에 스퀴시나무가 있다. 즉 “비가 와서 스퀴시를 심는 계절이 왔다”는 문장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구름과 비를 바라보고 있는 동물의 형상들이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각각 다른 동물을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동물이 각각 다른 ‘집안’을 나타낸다고 한다(Ibid). 즉 여러 집안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기원을 그려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²³⁾ 어쨌거나 제각각 다른 만물이 비를 기원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벽면의 돌을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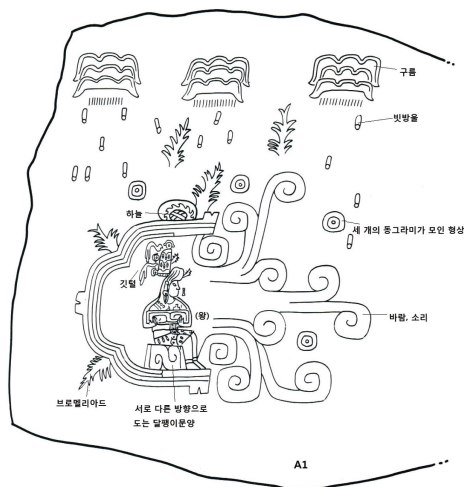
21) 시원한 맛의 야채이다.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 다음으로 중요한 식량이었다.

22) 메소아메리카문명의 기록에서 입에서 나오는 소용돌이 모양은 ‘소리,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inchilla, Coe and McNeil 2006).

검은 구름, 비, 동물, 소용돌이와 달팽이 모양을 그려서 비가 시작하는 시기, 식물이 자라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 ‘비가오기 시작하는 때를 기원하는’ 문장에 이어 동굴의 그림이 나온다(기념물 1-A1). 동굴의 위에는 비를 가득 뿌리고 있는 세 개의 구름덩어리가 그려져 있다. 그 밑으로는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으며 빗방울 사이로 자라고 있는 브로멜리아드(Bromeliad)²⁴⁾ 두 그루가 보인다. 또한 동굴에 붙어 자라고 있는 세 그루의 브로멜리아드가 보인다.

동굴 안에는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자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는 달팽이 모양이 새겨져 있다. 그는 빗방울을 표현한 것 같은 짧은 치마를 입고, 손에는 역시 ‘반대방향의 달팽이’ 모양의 ‘의례용 막대’를 쥐고 있



〈그림 5〉 Monumento 1, 동굴(A1) (Clark 1994, 250, 필자 수정)

빗방울, 구름, 식물(옥수수)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굴. 동굴은 의례의 장소이다.

- 23) 앙굴로(1987, 138)는 달팽이 모양과 동물이 합친 모양은 후기의 마야문자 ‘태어난다’는 동사와 매우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마야 문자 ‘태어나다’는 형태적으로는 유사성이 적어, ‘각각의 동물(또는 집안)이 비를 기원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24) Bromeliad, 파인애플과의 식물로 찰까친코 주위에서 많이 자라고 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브로멜리아드로 표현하고 있으나, 후일 옥수수가 주식으로 되면서 그림의 식물은 옥수수로 바뀌어 전해진다.

다. 위로 올린 그의 머리 위로 커다란 관을 쓰고 있다. 그의 관은 두 겹으로 이루어졌는데, 각각 떨어지는 빗방울이 세 개 그려져 있고, 뒤쪽으로는 께찰(Quetzal)새²⁵⁾의 깃털이 늘어져 있다. 관의 바깥에 눈썹과 눈을 표현한 것 같은 동그라미 역시 세 개가 있고, 관 앞에, 그리고 ‘남자’의 머리 앞쪽에도 브로멜리아드가 보인다. 그의 앞쪽으로 커다란 소용돌이가 퍼져 나오고 있다. 소용돌이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굴의 주위, 소용돌이 사이에는 ‘세 개의 동그라미가 모인’ 형상이 있다. 세 개의 동그라미는 물이 모이는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모두는 비와 비를 맞고 자라는 식물과 그 주위를 나타내고 있다.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례용 막대’를 쥐고 소리를 동굴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가 들고 있는 막대와 그가 앉아있는 의자에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도는 달팽이 모양이 그려져 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이 바뀌는 것, 여기서는 비가 내리는 계절이 시작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이미 보았다. 전체적으로 찰까친고의 기념물 1, A집단의 그림은 모든 동물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첫 비가 내려서 식물들이 죽었던 땅에서 다시 태어나서, 싹을 내는 것을 축하하는 모습이다. 그 의례의 주인공은,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동굴 안의 남자이다. 메소아메리카 문명에서 동굴은 의례의 공간이다. 동굴 주위에 있는 구름, 빗방울, 식물들과 그가 동굴 속에서 뿜는 소리로 미루어 그가 비를 부르는 의례를 이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의례를 주관하는 자인 동시에 ‘비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상징적인 관을 쓰고 집단을 이끌어 갔던 ‘왕’²⁶⁾이었다고 추정한다.²⁷⁾ A2-A7까지 그려진 여러 동물들이 각각의 집안을 나타낸다면, 그는 여러 집안의 대표들을 이끌고 의례를 진행하는 지배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5) Quetzal, 과테말라에 주로 서식하는 꼬리가 긴 새. 깃털의 색깔이 화려하고 길어서 왕의 비릇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식으로 쓰였다.

26) 이 동굴을 발견한 학자들은(Clark ed. 1994) 이 남자에게 ‘El Rey’, 즉 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도는 달팽이 모양이 그려진 의자 위에 앉아서 역시 같은 문양의 막대를 들고 자신이 하는 일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달팽이 문양은 두개가 맞물려서 상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동굴 속의 남자는 상태가 바뀌는 것, 시간이 바뀌는 것, 즉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어 비가 내리도록 소리를 내어 의뢰하는 사람이다. 약 3000년 후의 희멘 돈 빠블로가 한 것과 같은 일이다. 의례의 상황과 과정 또한 매우 유사하다. 돈 빠블로 둥근 아치를 갖는 제단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동굴과 같은 조건을 만들었다. 그가 일으킨 뿔의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과 같은 역할, 하늘과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나뭇잎들은 동굴의 왕의 관과 동굴 주위에 자라는 브로멜리아드와 동격이다. 그리고 마침내 떨어지는 빗방울의 모습은 개구리 소년들이 말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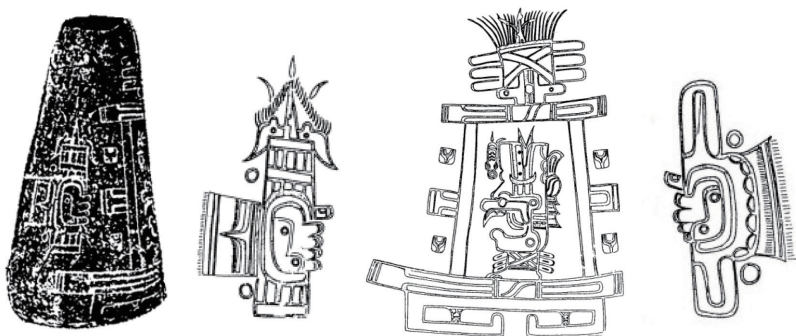
또한 돈 빠블로가 의례를 할 때 모든 마을사람이 모인 것처럼 찰까친고의 ‘왕’도 여러 집안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의례를 하고 기록을 남겼다. 그는 이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 즉 왕의 일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한다.

2. 희생의례를 하는 자, 옥수수 왕의 토기

찰까친고의 동굴 주위에서는 이 돌을새김의 벽화뿐만이 아니라 토기도 함께 발견되어 이 동굴의 주인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 6). 토기는 사다리꼴 모양의 병인데, 표면에 전체적으로 음각으로 그린 그림이 있다. 그림은 가로지른 막대와 같은 선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토기의 그림을 확대하여 보면, 맨 윗부분의 가운데에 X자 그려져 있고 양쪽으로 막대와 같은 것이 세 개가 나와 있으며, 위로는 세로로 여러 줄이 그려져 있어 깃털이 모여 있는 것이 보인다. 양쪽으로 나온 세 줄은 잡아맨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²⁷⁾ 네모 속에 X자를 그린 것은 ‘하늘’을 상징한다

27) Jorge Angulo(1987, 136)는 그가 동굴 안에 있으므로, 그를 ‘산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굴 앞의 소용돌이는 그가 내뿜는 ‘산울림’이라고 보았다. 그는 ‘산신’의 개념을 한국에서 말하는 산신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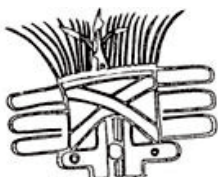
〈그림 6〉 찰까진고 주위에서 발견된 토기, 기원전 1150-800.

(6.1 왼쪽) 토기 전체 모습.

(6.2 오른쪽) 토기 표면의 그림을 펼쳐 도면으로 그린 것이다.

가운데에 보이는 것은 재규어 모양의 입을 벌리고 있는 얼굴의 옆모습이다. 머리의 가운데에 식물의 새순이 뿔죽하게 솟아있는 것이 보인다. 얼굴 옆으로 펼쳐진 양 손에는 소라 고둥이 잘라진 모습의 것을 들고 있다.

(출처: Coe et al. 1996: 288-9, 필자 수정)



(Quirarte 1997, 255; Grove 1990: 527) 가운데에 보이는 얼굴 바로 아래,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이 문양을 볼 수 있다. 역시 양쪽으로 세 줄이 나와 있어서 잡아맨 모양이다. 깃털, 하늘의 상징과 함께 이 부분은 ‘지배자의 머리띠’, 즉 왕관을 의미하는 글자로 보기도 한다(Justson 1986,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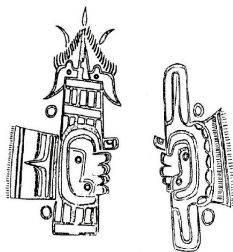
토기의 가운데에 보이는 얼굴은 옆모습인데 일반적인 사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입의 위와 아래에 3개의 동그라미, 이마에서 눈을 지나 ㄴ자로 귀까지 연결되는 넓은 줄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눈을 가로지르며 세로로 세 줄이 그려졌고, 첫 째와 두 번째 줄 사이로 4개의 동그라미가 보인다. 눈은 반달 모양, 입은 재규어 모양에 앞 이빨이 튀어나왔고 코에는 코걸이를



28) Taube(1995, 288)에 의하면, 같은 그림이 고전기 마야문명의 치아빠스의 속(Xoc)유적지에서 발견되었는데, ‘꾸러미’로 해석되었다. 토기 자체가 신성한 보따리를 상징하며, 끝부분을 마감한 것으로 본다.

하고 있다. 이마와 눈, 귀에 이르는 부분은 색칠을 하고 코와 입부분은 가면을 쓴 것으로 추정한다.²⁹⁾ 머리의 윗부분의 가운데에는 균열이 있어 그곳에서 식물(옥수수)의 싹이 나오고 있다. 그의 이마 앞에도 싹이 나온 식물(옥수수)이 보인다.

양쪽으로 모으고 있는 손은 네 개의 손가락이 보이고 손등에는 ㄴ 자에 두 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진 것이 보여, 양 손에 든 것을 묶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왼쪽 손(그림의 오른쪽 손)에는 소라 고동이 잘라진 모습의 것을 들고 있는데, 동글동글한 방울이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고, 그 바깥으로 털 같은 것이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다. 연속적으로 그려진 동그란 방울은 물 또는 피를 나타



낸다(Grove 1990: 551).³⁰⁾ 소라고동 자체도 물과 연관이 있다(Castellón Huerta 2000, 63). 오른쪽의 손(그림의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세로로 긴 막대 여러 개를 묶어 쥐고 있는 모습으로 곡식(옥수수)의 이삭 또는 햇불을 나타낸다(Montgomery 2002, 202).³¹⁾ 위에는 수염이 덮인 모습으로, 안쪽에서 삼각형의 뾰족한 것이 솟아오르고 바깥쪽에 세 갈래로 싹이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³²⁾ 이는 의례용 홀로써, 지배권과 물을 상징한다(Coe et al. 1996, 287). 동굴을 비추는 햇불은 의례를 행하는 자를 상징하는 동시에 새싹이 트게 하는 자, 즉 하늘과 통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자이다.

전체적으로 이 그림은 하늘, 식물, 그리고 피로 연결되는 의례를 나타내고 있다.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풍부한 비를 얻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희생의례

29) 메소아메리카의 지배자는 특정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상징하는 가면을 부분적으로 쓰는 경우가 흔히 있다(Pohl 2008, 30 F).

30) 메소아메리카문명에서 ‘귀한 물’, ‘신의 핏방울’을 의미하는 ‘찰치우이들(Chalchihuitl)’의 원형이라고 본다.

31) 햇불을 의미하는 마야상형문자는 “”이다.

32) N. Grube와 Rosemary Joyce는 이를 피를 흘리는(자기희생)의 도구라고 보고 있다(Coe et al. 1996: 107). 세 갈래로 보이는 식물은 옥수수가 자라는 과정에서 싹이 보이기 시작하는 초기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를 담당하는 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희생의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동굴의 왕’보다 더 강한 지배권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그는 희생의례의 도구와 지배권을 상징하는 홀을 쥐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면을 씌우며 해서 가면의 얼굴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본다.

히멘 돈 빠블로가 두 마리의 닭을 스스로 잡은 것은 토기의 왕과 같이 희생의례를 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본다.

3. 네 방향의 중심에 서 있는 자, 떼오판테꾸아니뜰란

게레로(Guerrero)주의 떼오판테꾸아니뜰란(Teopantecuanitlán, Guerrero) 유적지는 주민이 기원전 1400년경부터 살기 시작하였다. 1200년경에는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기원전 1000-800년 사이에 가장 발전하였다(Martinez Don Juan 1994, 154-155).

유적의 중심에는 말린 흙벽돌인 아도베(adobe)로 만든 신전이 있다. 신전의 안에는 붉은 색으로 칠한 얼굴이 4개 있는데, 찰까친고 토기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재규어의 입을 갖고 있다. 이 얼굴들은 북동, 동남, 남서, 서북의 방향에 놓여 있다(그림 7). 그리고 가슴과 이마에 하늘을 의미하는 ‘네모 속의 X’가 그려져 있다. 또한 귀의 위치까지 올라온 양 손에는 옥수수 이삭을 들고 있다.³³⁾ 이는 찰까친고의 토기의 손에 들고 있는 싹이 나온 홀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 머리띠에는 네 개의 옥수수 이삭과 가운데에는 새로 나오는 옥수수 싹 세 개를 표현하는 것을 꿸고 있다.³⁴⁾ 이 또한 찰까친고 토기의 머리에서 싹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머리띠에 가운데 있는 것은 본인, 네 개의 싹은 네 방위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재규어 입을 가진 사람은 가운데에 서 있는 것으로 스

33) 여기에 표현된 싹이 든 식물도 정확하게 옥수수 모양을 갖고 있지는 않다. 어쩌면 떼오판테꾸아니뜰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일의 메소아메리카 문명에서는 ‘싹이 오르는 식물’을 상징하는 것은 옥수수로 통일되므로, 옥수수로 해석했다.

34) 싹이 난 옥수수 잎의 표현은 문장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 접두사로 발전되었다.



〈그림 7〉 떼오판떼꾸아니틀란 중앙신전의 새김(Teopantecuanitlán, Guerrero)

(Martínez Don Juan 1995, 60, 필자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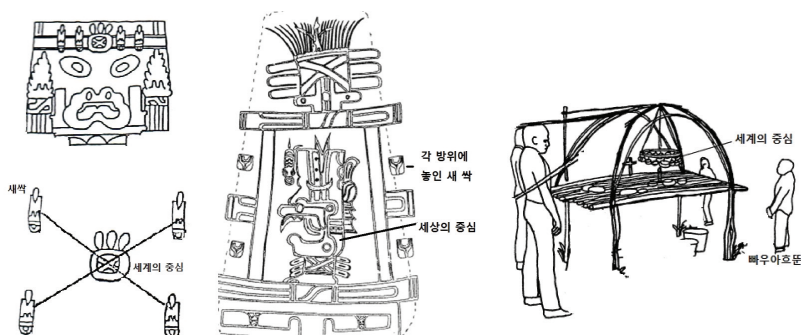
아도베로 된 재규어의 입을 가진 사람의 얼굴의 조상을 도면으로 그린 것.

재규어의 얼굴에 양손에 옥수수 이삭을 쥐고 있는 것은 농업과 관계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머리띠의 중심에는 세 개의 옥수수 싹과 하늘을 상징하는 문자, 재규어의 입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세상의 중심'임을 나타내고 있다.

스로 오방위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싹이 나오는 햇불을 들고 있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임을 과시하는 것이다.

떼오판떼꾸아니틀란 중앙신전 얼굴의 머리띠에서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옥수수와 네 방위에 배치된 옥수수 싹을 볼 수 있다. 찰가친고 토기의 얼굴의 머리에서 옥수수 새순과 두 잎이 나오고, 네 방위에서 있는 것도 역시 새순이 나오고 있는 옥수수 싹이다. 이 배치는 돈 빠블로의 제단과 같은 구성을 보여 준다(그림 8). 그들이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은 가슴에 그려져 있는 '네모 속의 X' 글자로 나타낸다. 돈 빠블로가 '뿔'으로 하얀 연기를 일으켜 그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상징한 것처럼 깃털달린 관은 그들의 소리가 하늘로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돈 빠블로도 자신이 중심에서 하늘을 받쳐 마야사람들이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천체의 운행의 질서를 따르며,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원활하게 하고, 때로는 비를 부르기 위해서 하늘과 교통하는 존재인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8〉 오방위의 중심에 있는 자의 비교.

- (8.1 왼쪽) 페오빠페꾸아니뜰한 중앙신전, 머리띠 부분을 입체적으로 그린 것 (Clark 1994, 258 필자 수정)
 (8.2 가운데) 찰까친고의 토기 (Clark 1994, 230 필자 수정)
 (8.3 오른쪽) 야수나의 기우제의례 제단 (Freidel, Schele and Parker 1993, 32 필자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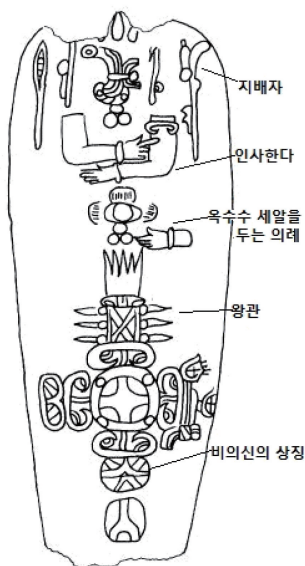
히멘은 세계의 중심 앞에 서서 스스로 옥수수가, 주위의 네 남자는 각 방위에 놓인 새싹이 된다.

4. 돈 빠블로가 하는 일과 그 한계, 흠볼트 홀

돈 빠블로가 나타내는 지배자는 그 스스로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의례를 통하여 하늘의 신과 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일 뿐이다.

‘흠볼트의 도끼모양 홀’³⁵⁾이라고 알려진 유물에서는 찰까친고의 동굴과 토기에 있는 요소들과 그가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다. 흠볼트의 ‘도끼모양 홀’에 그려진 형상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루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에 주목한 저스트손(Justeson 1986)은 이 형상들이 찰까친고의 벽의 새김과 같은 유형의 문장임을 밝혀냈다(그림 9). 맨 위에는 ‘지배자’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의 상징중의 가운데에 있는 것은 곡식의 다발과 세 개의 곡식알갱이이다. 이 곡식은 옥수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한다. 곡식의 다발 맨 왼쪽에는 물방울을 의미하는 두 점의 동그라미와 그로부터 나오는 물줄기가 옥수수

35) 올메카 및 형성기의 메소아메리카문명의 지배자들은 ‘도끼모양의 홀’을 들었다. 영어로는 ‘Celt’라고 한다.



〈그림 9〉 흠볼트 도끼모양 홀(Humboldt celt)

(그림 Guernsey 2006, 10; 해독은 저스트슨(Justson 1986, 443)을 따라 필자가 정리하였다.)

다발과 함께 묶여졌다. 옥수수의 수확과 물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지배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밑으로 두 팔을 모으며 인사를 하고, 바로 옥수수알갱이 세 개를 던지는 의례를 한다.³⁶⁾ 그 다음에는 깃털이 달린 관이 그려져 있다. 관은 찰까친고 토기의 얼굴이 썼던, 하늘의 상징과 깃털로 장식된 관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

따라서 흠볼트의 도끼홀의 내용은 “지배자(즉 희멘)가 비의 신에게 의례를 하며 인사를 드린다.”는 내용이다. 이 상황은 돈 빠블로가, 찰까친고의 동굴의 사람과 토기의 얼굴이, 그리고 네 방위의 중심에 선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한 신과의, 이 경우에는 비의 신, 교통이다. 그는 스스로

36) 옥수수 알 세 개를 던지는 것은 고대 마야문명에서 세 개의 돌을 놓는 행위와 같다. 이는 세 돌을 놓아 아궁이를 만드는 것으로, 정착생활, 즉 문명의 시작을 의미한다 (Freidel, Schele and Parker 1993, 52-54; Guernsey 2006, 134).

가 신이 될 수는 없으나 신과 대화를 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중간자이다.

V. 맺음 말

오늘날의 마야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이루었던 고대문명에 대해 이야기할 많이 하지 않는다. 문명이 단절된 지 500여년이 흘렀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며 오늘날에 이르면서 그들은 가톨릭의 종교의식과 스페인식 행정체계에 적응하여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야원주민의 생활에서는 유럽적이지 않은 그들의 세계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차착의례’이다.

옥수수의 경작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면 유까탄 반도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비를 기원하는 ‘차착 의례’를 한다. 마을전체가 하는 공적인 행사로, 전통적인 지도자인 희멘이 주관한다. 마을 사람들이 여러 겹의 포르피야인 뚜껑레스, 성스러운 음료 발체를 준비하는 동안 ‘희멘’은 닭을 죽이고, 천정과 세 면이 닫힌 의례의 공간을 만든다. 열린 한 면을 통하여 의례의 공간으로 들어간 ‘희멘’은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각각의 귀퉁이에 하늘을 받치는 신을 상징하는 젊은이를 세운다. 오방위의 중심인 희멘은 네 귀퉁이의 탁자를 돌며 천체의 운행을 재현하며 비의 신과의 대화를 하고 마침내 비를 불러온다.

‘희멘’이 한 행위에는 메소아메리카의 우주관,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형성기 및 마야문명 고전기의 세계관 등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차착제의’에 나타나 있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 의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의 기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이 일을 수행한 샤먼, 마야사람들은 ‘희멘(h-men)’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원은 ‘존경하는 선생’이라는 뜻의 아흐멘(Ah-men) 또는 ‘존경하는 해’라는 뜻의 아흐킨(Ah-Kin)을 줄인 말이다. 즉 ‘희멘’은 해를 상징하는 사람, 존경받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희멘이 한 일은 고대문명에서 이미 있었던 일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마

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내고 모든 준비를 함께 하여 공식적으로 기우제를 하는 모습은 찰까친고의 돌벽에 새겨진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러 집안의 사람들이 모여 첫 비를 기원하였고, ‘동굴 속의 왕’은 돈 빠블로처럼 큰 목소리로 그들의 소망을 하늘에 전달하였다. 돈 빠블로가 일으킨 ‘뽀의 연기’가 하늘 가득이 퍼져 올라간 것처럼 동굴 밖으로 퍼지는 큰 울림과 위에 가득한 물방울은 ‘동굴의 왕’의 ‘전달행위’도 유효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과 대화를 하던 지도자가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졌을 가능성은 동굴 주위에서 발견된 토기에 남겨진 그림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는 한 손에는 희생 의례를 하는 도구와 다른 한 손에는 곡식이삭을 여러 단 모은 형태의 햇불을 들고 있다. 그는 ‘동굴 속의 왕’처럼 시간의 흐름을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물인 ‘수확’을 관장하는 것을 보여준다. 역시 오늘날의 ‘희멘’도 닭을 죽여서 희생의례를 하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돈 빠블로는 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세웠다. 이는 고대의 지도자들이 찰까친고의 경우처럼 동굴 속에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거나, 떼오뽀떼구아니뜰란에서 신전을 만든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희멘’은 네 귀퉁이를 받치는 조력자들과 함께 다섯 방위를 세우고,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이것은 고대의 지도자가 한 핵심적인 일이었다. 찰까친고의 토기, 떼오뽀떼구아니뜰란의 신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 되어, 네 방위로 펼쳐진 세계를 지탱하였다. 동시에 그는 천체운행의 방향을 따라 도는 것으로 우주의 운행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흙볼트의 도끼모양의 홈에 적혀있는 고대의 지도자들처럼 ‘희멘’도 신이 아니며, 찰까친고의 토기나 떼오뽀떼구아니뜰란의 얼굴처럼 신이 되고자 가면을 쓰지도 않는다. 그는 의례를 통하여 신에게 마야사람들의 필요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다.

‘희멘’이라는 용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은 고대문명의 유적과 유물에 나타나 있다. 그 유물은 기원전 1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소아

메리카 고대문명의 형성기이다. 희멘이 한 일은 옥수수의 경작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며 부락을 이룰 때에 그 부락을 이끌던 지도자가 했던 행위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그 행위는 신에게 부르짖는 것을 포함하는 종교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행위라기 보다는 ‘필요한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이다. 즉 옥수수 씨앗을 심어 옥수수를 추수하는 것과 같이, 또는 우물을 파서 경작지에 물을 대는 것과 같이 신을 불러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다.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행동이 필요했고, 그것을 조정하는 자가 필요했다. 그가 ‘왕’으로 불렸던 희멘이었던 것이다.

돈 빠블로가 사는 오늘날의 세상에는 양수기로 물을 얻고, 농법으로 옥수수의 씨앗을 얻는다. 그리고 마을은 도시의 행정체계 속하여 있어 시장, 도시사,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빠블로가 필요한 것은 마야 토착인의 마음의 바탕에 있는 자연에 바탕에 둔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아직도 마야사람들의 일상과 의식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이 절대적으로 지배했던 식민지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된 유까판의 기우제, ‘차찰 의례’는 여전히 마야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살아있는 고대 문명의 증거이다. 다른 한편, ‘차찰 의례’는 고대의 종교 행사가 아니었고, 비가 필요할 때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정적인 행사였다. 따라서 이 의례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광장 또는 교회, 모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자는 ‘희멘’이다. ‘희멘’은 단순한 샤먼이 아니라, 문명의 초기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공행사를 이끄는, 가장 오랜 전통의 지도자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세건(2009), 「동굴기우제에 나타나는 메소아메리카 자연관」, 이베로아메리카논문집, 11권 2호, pp. 1-35.
- Alonso Espinoza, Ángeles(1995), “La ceremonia del Cha’a Chak: Rogación para la lluvia,” *Arqueología Mexicana*, vol. II, no. 11, pp. 44-49.

- Angulo, Jorge V.(1987), "The Chalcatzingo Reliefs: An Iconographic Analysis," David C. Grove(ed.), *Ancient Chalcatzingo*, Austin: University of Texas, pp. 132-158.
- Barrera Vásquez, Alfredo(ed.)(1991), *Diccionario Maya*, México: Editorial Porrúa, S. A.
- Castellon Huerta, Balas Román(2000), "El Jaguar rugiente," Beatriz Barba de Piña Chan(ed.), *Iconografía Mexicana II, El cielo, la tierra y el inframundo: águila, serpiente y jaguar, coleccion científica*, México: INAH, pp. 61-68.
- Chinchilla, Oswaldo, M. Coeand P. McNeil(2006), *Kakaw*, Guatemala city: Museo Popol Vuh & UFM.
- Clark, John E.(ed.)(1994), *Los Olmecas en Mesoamérica*, México: El Equilibrista, Madrid: Turner Libros, S.A. C.V.
- Coe, Michael D., Richard A. Diehl, D.A. Freidel, et al.(1996), *The Olmec World Ritual and Rulership*, The Art Museum, Princeton University.
- De la Garza, Mercedes(2002), "Mitos Mayas del Origen del Cosmos," *Arqueología Mexicana*, Vol. X No. 56, pp.36-41.
- Freidel, David, Linda Schele and Joy Parker(1993), *Maya Cosmos: Three Thousand Years on the Shaman's Path*,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 Grove, David C.(1994), "Chalcatzingo," John E. Clark(ed.)*Los Olmecas en Mesoamérica, México: El Equilibrista*, Madrid, Turner Libros, S.A. C.V., pp. 165-173.
- _____(2008) "Chalcatzingo: A Brief Introduction," *The PARI Journal*, Vol. IX, No. 1, pp. 1-7.
- Guernsey, Julia(2006), *Ritual and Power in Stone: The Performance of Rulership in Mesoamerican Izapan Style Art*, Austin: University of Texas.
- Justeson, John S.(1986), "The Origin of writing Systems: Preclassic Mesoamerica," *World Archaeology*, Vol. 17, No. 3, pp. 437-458.
- Lopez Austin, Alfredo(1995), "Los milenios de la religión mesoamericana," *Arqueología Mexicana*, No.12, pp. 4-15.
- _____(1996), "La cosmovisión mesoamericana," *Temas mesoamericanos*, México: INAH, pp. 471-507.
- Martínez Don Juan, Guadalupe(1994), "Los Olmecas en el estado de Guerrero," John E. Clark(ed.), *Los Olmecas en Mesoamerica*, México: El Equilibrista, Madrid, Turner Libros, S.A. C.V. pp. 142-163.
- _____(1995), "Teopantecuanitlán," *Arqueología Mexicana*, Vol.II, No.12 pp. 58-62.
- Matos Moctezuma, Eduardo(2001), "Fray Diego de Landa: ¿Ángel o demonio?," Antonio

- Benavides Castillo(ed.), *Los últimos reinos mayas*, México: CONALCULTA, pp. 215-226.
- Quirarte, Jacinto(1997), “Early Art Styles of Mesoamerica and Early Classic Maya Art,” *The Origin of Maya Civilization*,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pp. 249-289.
- Pohl, John M.D.(2008), *Aztec, Mixtec and Zapotec Armies*, New York: Osprey Publishing Ltd. 1st. Ed.(1991), Osprey Publishing Ltd.
- Rugeley, Terry(1996), *Yucatan's Maya Peasantry and the Origin's of he Caste War*,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Schele, Linda and David Freidel(1990), *The Forest of Kings: the untold history of the Ancient Maya*,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 Taube, Karl A.(1995), “The Rainmakers: The Olmec and Their Contribution to Mesoamerican Belief and Ritual,” *Michael D. Coe et al., The Olmec World: Ritual and Rulership*, New York: The Art Museum, Princeton University, pp. 82-103
- Villa Roja, Alfonso(1995), *Estudios Etnológicos: Los Mayas*, 1^a Ed.(1985), México: UNAM.

정 해 주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pztintin@pufs.ac.kr

논문투고일: 2013년 3월 3일
심사완료일: 2013년 4월 4일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9일

The Origin of Aboriginal Leadership Revealed in Cha'-Chak Ceremony

Hea Joo Chung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ung, Hea Joo(2013), The Origin of Aboriginal Leadership Revealed in Cha'-Chak Ceremony.

Abstract When the maize cultivation begins most of villages in Yucatan peninsula do Ch'a-Chak ceremony, "Bring-Rain" ritual. It is a public event for whole village and the schamanic priest h-men leads it. All village people prepare multi-layered tortilla tuitles, sacred beverage balche', and the victim turkey. The h-men prepares sacred space on the table by making naval and three closed wall and an open entrance. He enters through it, and he himself be Axis-Mundi. And put every corner a man who sustains heaven. The Axis-Mundi, h-men moves counterclockwise circle trying to summon the Rain God to bring the rain. The action of today's h-men could find in Formative period of Mesoamerican civilization ruins such as Chalcatzingo cave and pottery, ceremony center of Teopantecuanitlan, and Humboldt celt. The aboriginal leadership that began with the cultivation of crop continues even today as useful Prehispanic legacy.

Key words H-men, Cha'-chak, Summons God, Axis Mundi, Prehispanic legacy